

2022 년 가을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재 안에서 생활함

메시지 3

사랑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 삶으로써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기 위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재대로 그리스도를 배움

성경: 요일 4:8, 16-19, 요 21:15-17, 벤전 2:25, 5:1-4, 고전 12:31 하—13:8 상

- I.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생명은 사랑의 생명이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을 사는 생활을 하셨고,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 되신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동일한 사랑의 생활을 하여 그분의 존재와 똑같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요일 3:14, 5:1, 2:6, 4:17.
- A.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다. 사랑은 하나님의 내적인 본질이며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거듭나 하나님의 종(種), 하나님의 종류(種類)가 되었고(요 1:12-13)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 4:8, 16). 우리는 신격이 아니라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다만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자체가 되어야 함을 뜻한다.
- B.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되어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버려야 한다 — 유 19-21, 고후 5:14, 벤전 1:22, 3:8-9, 살후 3:5, 요일 3:14-16, 4:7-21.
- C.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써 그분의 사랑을 우리 안에 주입하시고, 또 우리 안에 사랑을 산출하셨다. 우리는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들을 사랑한다(요일 4:19-21).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인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표현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 요일 4:16-17, 영한동번 찬송가 546, 547 장.
- D. “나를 이끌어 주세요. 우리가 당신을 좇아 달려가렵니다.” (아 1:4 상), “사람의 줄들로, 사랑의 끈들로 나는 그들을 이끌었고”(호 11:4).
1. ‘사람의 줄들로, 사랑의 끈들로’라는 구절은 하나님께서 신성의 수준에서가 아니라 인성의 수준에서, 그분의 신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사랑은 신성하지만 사람의 줄들로, 즉 그리스도의 인성을 통해 우리에게 도달된다.
2.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사람의 줄들은 그리스도의 육체 되심과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포함한다. 그리스도께서 인성 안에서 통과하신 이 모든 단계들에 의해 하나님의 구원 안에 나타난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도달한다 — 롬 5:5, 8, 8:35-39.
- II. 목양에 대한 장인 요한복음 21 장은 요한복음의 완결이자 완성이다 — 요 21:15-17.
- A. 요한복음은 우리를 보살피고 보양하심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책이다. 사람을 보살피는 것은 그들을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마 9:10, 눅 7:34), 사람을 보양하는 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먹이는 것이다(마 24:45-47).
1. 나다나엘이 하나님-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았을 때, 그분은 나다나엘에게 야곱이 꿈에서 하늘에 속한 사다리를 본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이신 그분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일종의 보살핌으로서 나다나엘이 그분을 따르도록 격려하여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전체에 계시된 모든 신성한 혜택들을 포함한 그분의 보양하심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 요 1:45-51.

2. 하나님-구주이신 그리스도께서 부도덕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고자 하셨을 때 그분은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거쳐 갈릴리로 여행하시면서 사마리아의 큰 길에서 수가라는 동네로 우회하셨다. 그분은 수가에서 가까운 야곱의 우물에서 기다리셨다. 이곳에 가신 목적은 그분이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요청하심으로써 그녀를 보살피시고,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 자신이신 생명수로 그녀를 보양하시려는 것이었다 — 요 4:3-14.
 3. 비탄하던 바리새인들 중에 한 사람도 간음한 여인을 유죄판결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구주이신 그리스도는 인성 안에서 그녀에게 “나도 그대를 유죄판결하지 않으니”라고 하시면서 그녀를 보살피셨다. 이것은 “위대한 나는 이다”이신 그분께서 그녀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녀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그녀를 보양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 요 8:3-11, 24, 34-36.
- B. 부활 후에 주님은 베드로를 목양하셨고 그분의 어린양들을 먹이고 그분의 양들을 목양하라는 위임을 주셨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산출하도록 하나님의 양 떼인 교회를 돌보기 위한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사도의 사역을 합병시킨다 — 요 21:15-17.
1.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과 함께 감옥에라도 가고 죽기까지도 할 정도로 따를 것이라고 생각할 만큼 자신의 타고난 힘과 역량에 대해 스스로 확신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고 심지어 어린 하녀 앞에서까지 부인했다 — 눅 22:33, 요 18:15-18, 25-27.
 2. 베드로는 철저히 패배당하고 완전히 실패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결코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더 이상 자신에 대해 어떤 확신도 갖지 않게 되었다 — 26:69-75, 비교 빌 3:3.
 3. 노예-구주의 부활을 발견한 세 자매들을 위한 천사의 메시지는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 말하십시오.”였다 — 막 16:7, 비교 벰전. 5:13.
 4. ‘...과 베드로에게’라는 구는 비록 베드로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 해도 주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가리킨다. ‘...과 베드로’는 또한 ‘...와 당신’, 즉 베드로처럼 실패한 사람인 당신을 의미한다.
 5.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러한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기 바란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거나 우리를 잊으시거나 우리를 버리시는 것은 불가능하다 — 속 2:8, 사 49:15-16.
- C. 베드로는 주님의 이러한 위임에 큰 인상을 받았다.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믿는 이들에게, 그들이 전에는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하였으나 이제는 그들의 혼의 목자이시며 감독이신 분께로 돌아왔다고 말한다 — 벰전 2:25.
- D. 베드로는 장로들에게 그들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 떼를 목양하라고 권유한다. 그것은 목자장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들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벰전 5:1-4). 베드로의 말은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은 주로 하나님의 양 떼인 하나님의 교회를 목양하여 그 결과로 그분의 몸을 산출하기 위한 것임을 가리킨다.
- E. 그리스도의 하늘에서의 사역과 합병된 사도들의 사역의 주된 목적과 목표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의 성취를 위하여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것이다.
- III. 우리 가운데서 사랑이 이겨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건축을 위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거나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최상의 길은 사랑이다 — 고전 12:31 하—13:8 상.**
- A.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엄몰되어 떠밀려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신성한 사랑은 우리를 향해 몰아치는 큰 파도처럼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가 그분을 향하여 살고 우리 자신을 억제할 수 없이 그분을 지극히 사랑하게 해야 한다 — 고후 5:14.
 - B.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려면 우리는 날마다 사랑이신 하나님을 주입받는 사람들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면서 평생에 그분의 아름다움(사랑스러움, 즐거움, 유쾌함)을 바라보고 그분의 성전에서 여쭙기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여쭙는 것은 우리의 일상 생활의 모든 것에 관하여 하나님과 점검하는 것이다 — 시 27:4.
 - C. 고린도전서 13 장에서 바울이 묘사한 사랑은 신성한 사랑의 표현이다(고전 13:4-8 상), 더욱이 사랑이 그 영의 열매라는 사실은 사랑의 실질이 그 영이라는 것을 가리킨다(갈 5:22).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말은 생명이 없이 소리만 내는 울리는 징과 큰 소리 나는 제금이 된다(고전 13:1, 14:1, 3, 4 하).
 - D.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남의 잘못을 마음에 두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보다 오래 남아있고, 가장 크다 — 고전 13:4-8, 13.

- E.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고 아무 차별 없이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마 5:43-48),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에 의해 처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사형 선고를 받은 범죄자인 강도였다. 이것은 깊은 의미가 있다(마 27:38, 눅 23:42-43).

IV.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은 사랑의 법인 그리스도의 법이다(롬 8:2, 갈 6:2-3), 사랑의 법은 생명의 법에 의해 실질화되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짊어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교만으로 채워진다면 우리는 아무 것도 아니면서 무언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속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짐을 짊 수 없게 될 것이다(갈 6:3).

- A. 사랑의 법이 우리 속에서 작동할 때 자동적이고도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고 용서하는 마음과 우리 구주이신 그리스도의 목양하며 찾는 영을 가진 목자들이 될 것이다 — 요 21:15-17, 눅 15:3-7.
- B. 사랑의 법이 우리 속에서 작동할 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수고는 사랑의 수고(고전 15:58, 살전 1:3)이며 사랑의 수고 안에서 우리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행 20:35), ‘연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살전 5:14) 준다. ‘연약한 사람들’은 영이나 혼이나 몸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가리킨다(롬 14:1, 15:1).
- C.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거듭난 영은 사랑의 영이다. 우리는 오늘날의 교회의 하락을 정복하기 위해 사랑의 영으로 불타올라야 한다 — 딤후 1:7.
- D.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의 가지들로서 우리는 열매맺음에 있어서 신성한 생명을 표현하기 위해 서로 사랑해야 한다 — 요 15:12-17.
- E. 교회 생활은 형제 사랑의 생활이며(요일 4:7-8, 요이 5-6, 요 15:12, 17, 계 3:7, 엡 5:2, 비교 유 12 상), 몸은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된다(엡 4:16).
- F.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한다”. 우리는 사역의 메시지들을 듣고 단지 지식을 가지고 교만에 빠질 수 있다 — 고전 8:1 하, 비교 고후 3:6.
- G.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는 표시이다(요 13:34-35), 교회 안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것은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과 반대된다(요삼 9).
- H.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주 예수님께서 그분의 혼 생명을 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사랑하고 공급하는 생명의 친밀한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 우리의 혼생명을 잃고 자아를 부인해야 한다 — 요일 3:16, 요 10:11, 17-18, 15:13, 엡 4:29—5:2, 롬 12:9-13, 고후 7:2-7, 12:15, 몬 7, 12.

V. 시편 22 편부터 24 편까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부터 오는 시대에 그분의 왕의 직분까지를 계시하는 일련의 시편들이다. 시편 22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부활 안에서 산출된 많은 형제들이 그분의 교회를 형성함을 본다. 시편 23 편에서는 부활 안에서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본다. 시편 24 편에서는 왕국 안에서 오시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본다.

- A. 이 세 편의 시편들은 과거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장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왕국 안에서 왕으로서 다시 오심 사이에 현재 공기 같은 영이신 목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누림과 체험과 표현을 보여준다.
- B. 이것은 목양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 사이의 다리임을 계시한다. 하늘에서의 사역 안에서 그리스도는 현재 사람들을 목양하고 계시며, 우리가 그분의 놀라운 목양에 참여한다면 주님의 회복 안에 주님을 다시 모셔 오는 큰 부흥, 새로운 부흥이 있을 것이다.